선미 "미녀 뱀파이어" 변신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3조 6명 중 5번 뽑은 연아

안전·신뢰와 담 쌓은 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사고 유출량 의도적 축소 문건 '들통'

신년 벽두에 불거진 '여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GS칼텍스의 부도덕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고 당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최근 여수해경 조사에서 GS칼텍스 측이 유출량을 축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간 GS칼텍스는 축소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에너지는 물론 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은 단순한 공염불임을 입증한 결과가 됐다.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의 안전불감증은 곧 기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안전 문제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글로벌 석유회사 '셸' 등과 비교해보면 GS칼텍스 등의 기업이 세계 최고로 성장하기 힘든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ksc@metroseoul.co.kr

"그런 적 없다→우리도 피해자" 발뺌하다 뒤늦게 사과 시늉

◆GS칼텍스 유출량 축소 은폐 '사실로 드러나'

여수해경이 최근 실시한 GS칼텍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GS칼텍스 측이 유출량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GS칼텍스가 사고 초기에 유출량을 800ℓ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2000ℓ로 수정한 문건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2000ℓ를 기준으로 실제 유출량 16만4000ℓ보다 132배 가량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 측은 그간 '800ℓ나 2000ℓ라고 발표한 사실이 없다'며 축소의혹을 부인해 왔다.

여수해경은 지난 15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우이산호 충돌로 원유2부두의 송유관이 파손된 이후 GS측의 송유관 차단 및 유류 확산 방지 등이 적절했는지와 초기 유출량 축소 은폐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파손된 송유관에서 원유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부분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GS칼텍스 여수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GS칼텍스 측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와 초동 조치 상황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GS칼텍스측의 대응행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GS칼텍스는 당초 늑장 신고를 한 책임이 있다. 송유관 자동잠금장치가 작동 안 돼 3종류 기름이 쏟아졌다"며 "25분이나 쏟아지고 나서야 수동으로 잠가 초기 기름 유출을 막지 못했다"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GS칼텍스가 원유 유출량을 축소 발표해 초동 대처를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유조선이 들이받은 송유관에서 기름도 빼놔야 하는데 그런지침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GS칼텍스는 기름 유출량을 수백 배 축소하고 신고를 미뤄 해양오염 방제 매뉴얼의 작동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며 "지난 1995년 좌초한 씨프린스호의 소유주였고 같은 해 일어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도 GS칼텍스 소유 부두에서 일어났단 걸 고려하면 이 회사의 안전불감증은 충격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웃음 되찾은 한국 쇼트트랙 '오늘은 금메달' 쇼트트랙 자세미 여왕 심석희가 첫 금메달을 기대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18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경기에 출전하는 그는 17일 러시아 소치 스케이팅 트레이닝 베뉴에서 훈련 중 박승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석희는 지난 15일 주종목인 1500m 결승에서 다잡은 역전을 당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허진수 부회장 비전은 '공염불'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은 대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조해왔다. 허 부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도 에너지는 물론 화학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 등 5가지 중점 실행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계열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킨다며 '전국 LPG충전소 및 주유소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부회장의 이런 결의와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 '여수 기름 유출사고'에 이어 최근 여수산업단지내 GS칼텍스 석유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3명 사망 60여명 매몰 추정

17일 오후 9시 15분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오션 리조트 내 강당 건물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와 사고 현장 학생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건물에선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 1000여명의 학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콘서트를 진행 중이었으며 지붕에서 큰 요동이 생긴지 10초가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부분의 학생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학생들이 한꺼번에 중앙 출구쪽으로 몰리면서 100여명이 매몰됐다.

오후 11시30분 현재 사망자 3명, 경상자 40여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다. 매몰자는 50~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고는 강당 건물에 전날부터 내린 눈이 쌓인 상황에서 계속 눈이 내리면서 결국 지붕이 이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현장은 폭설 산간 지역에 있는 한편,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신고 접수 즉시 소방차 20여대, 구급차 5대, 소방대원 100여명 등을 1차, 2차에 걸쳐 출동했다.

경주소방서는 관계자는 "대부분이 사고 당시 자력으로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수십명의 매몰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유죄…징역 12년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진보·보수 단체 맞불집회로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은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왼쪽), 보수단체 회원들은 '종북세력 척결'을 각각 외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연합뉴스·뉴시스

선동·국가보안법 위반도 유죄 판결… "RO는 내란주체-소모임은 세포모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범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 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혁명 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벗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 확실하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철골공사 중단명령

"화재원인 규명 때까지"

화재가 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 철골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47층 철골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화재 진화 후 현장에서 철골작업공사 중단 명령을 구두로 전달했고 이날 공문을 발송했다.

철골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일단 47층 이상으로 증축하는 작업을 멈추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 서울시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47층 이하의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화재사고는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47층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발생했다. 불은 약 25분 만에 현장 작업 인력과 소방관에 의해 꺼졌다. /김민준기자

GS칼텍스, 셸의 '안전제일경영' 배워야

<1면에서 계속>

이번 '여수 기름 유출사고'의 대처 과정에서 자신들이 1차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정부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보상 주체로 거론하자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다 사건 발생 후 11일 후에야 허진수 부회장 명의로 사과공고를 냈다. 허 부회장은 "피해주민에 대한 빠른 보상과 완벽한 방제작업 마무리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터를 잃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나라 석유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카드 사태 등에서 다른 기업의 대표들이 국민 앞에 직접 고개를 숙인 것과 너무 다른 행태여서 진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여수 대책의 축소은폐 발표로, 부도덕성이 더욱 드러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GS칼텍스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우선 조기에 책임을 다한 후 국가와 원유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청구과정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국적 석유기업 '셸'에서 배운다

다국적 석유기업은 '셸'은 안전 문제에 있어 모범 사례로 꼽힌다. 셸은 이미 지난 2004년 운전자가 주유 중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만들어 싱가포르 전역에 배포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전역에 주유소 74곳을 두고 있는 셸은 '안전을 생각해 안전을 지키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유 중 운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적시한 행동 수칙을 만들었다.

셸은 또 사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CEO 주도로 세계 모든 지역에 단일한 안전 기준을 만들고 하청업체도 안전 기준을 준수 여부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직원의 모든 의료 기록과 건강검진 기록을 회사가 관리해 직원의 건강까지 관리하고 있다. /김대균기자 [illegible]

이집트 장관 병문안 16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들이 탄 버스를 대상으로 폭탄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이집트 보건부 장관이 17일 샤름 엘셰이크 병원을 방문해 한국인 테러 부상자들을 병문안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괴한 밀어낸 후 폭발음"…자폭테러 가능성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16일(현지시간)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를 상대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버스에는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소속 성지순례 관광객 31명과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33명과 이집트인 2명(운전기사 1명 가이드 1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테러로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신도 김홍렬(64)씨와 현지 가이드 겸 블루스카이 여행업체 사장 제진수(56)씨, 한국에서 동행한 가이드 김진규(35)씨 등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운전사가 사망했다.

부상자 가족을 간호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한국인 부상자 14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한국인 15명은 가벼운 부상자로 17일 새벽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과 함께 귀국했다.

정부는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는 한편,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해당지역에서 이집트와 주변 4개국에서 여행중인 국민에게 철수 권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생존자들은 "20대 괴한이 타바 국경초소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차단을 무력화 폭발됐다"며 "괴한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가이드들이 밀어 냈으며, 그가 버스 밖으로 나간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날 "과격 이슬람 단체인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가 한국인 관광버스 테러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illegible]기자

여야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공방

여야 정치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 및 특검을 통한 엄벌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조사 결과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나서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 공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도 "외교문서 조작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역외탈세 1조원대 추징

지난해 1조789억 역대 최고액…2012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

A씨는 선박 임대료를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국내 계좌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그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빌딩 취득, 자녀 유학 경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국내 부동산 등에 사용했다.

또 B씨는 임직원 2명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회사의 거래를 임직원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은닉했다.

이들은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역외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수백억원의 추징액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 세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역외 탈세 추징 실적은 1조789억원으로 2012년 8258억원에 비해 30.6%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추징 실적은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했으며 추징 성과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고 덧붙였다.

역외 탈세는 선박 관리 등의 서비스업에서부터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역외 탈세 조사와 시너지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기존 1억원이었던 탈세 제보 보상금이 올해 2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 것도 이번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 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원본 자료를 통해 역외 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1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 탈세 근절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illegible]

"폭설에도 끄떡없어" 강원 동해안 지역에 10일 오전까지 최고 80cm의 폭설이 계속된 가운데 17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의 한 주민이 폭설 대비 자재 모자를 쓰고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입영신검 때 혈당도 검사한다

국방부, 11개 항목 추가

국방부가 최근 육군 50사단 훈련병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입대 직전에 일반혈액검사 5개 항목과 간 기능(GOT) 신장 기능,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염증 반응(CRP), 소변검사 등을 추가해 입영 신체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간 기능, B·C형 간염, 매독, 에이즈 검사 이외에 11개 항목이 추가돼 16개 항목의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또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 신검을 담당하는 군의관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정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때는 뇨당검사 방식이 혈당검사 체계로 개선된다.

앞서 육군 50사단 예모(20) 훈련병은 지난달 19일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육군본부와 육군 2작전사령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 이 훈련병은 지난해 12월 17일 입소 이후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보는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해당 부대와 군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illegible]

"새 정치 출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무소속 안철수(왼쪽 네번째) 의원과 공동위원장들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깜짝인사 없었던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 열어 안철수, 중앙위원장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17일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안 의원 등 창당 발기인 374명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창당준비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안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신당 당명으로 '새정치연합'이 의결됐고, 발기 취지문도 가결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정치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하며 삶의 정치, 국민을 품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속을 지켜 희망을 만드는 정치 ▲정치적 담합 타파를 통한 정치구조 개혁 ▲남북의 평화·상생 노력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논의 ▲국민 참여의 정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안 의원 외에 김성식 김효석 박호군 윤여준 윤장현 이계안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그대로 창준위 공동위원장단에 합류하고, 발기인 중 1명인 홍근명 전 울산시민연대 대표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출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강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60곳 확충 서울 강서구는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유 보육도시 관문가에 ...을 다할 계획이다. 사진은 노현송(오른쪽) 구청장이 민관연대 방식으로 새롭게 조성된 하늘샘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고교생 평균 수면시간 5시간27분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27분으로 4년 전보다 1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 초등학생(4~6학년)과 중 고교생 95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6분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시간 19분, 중학생 7시간12분, 고등학생(특성화고 제외) 5시간27분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8시간30분에서 8시간19분, 중학생은 7시간24분에서 7시간12분으로 감소했다. /[illegible]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서울시 강남구가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5명의 차량 리스보증금 12억2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총 29개 리스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리스사는 검찰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오늘의 역사

그림 박상철

거장 미켈란젤로 사망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조각·회화·건축의 대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1564년 2월 18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피렌체의 메디치가와 로마 교황들의 후원을 받은 그는 20대에 이미 산피에트로성당의 '피에타'와 피렌체 시청 앞의 '다비드'로 천재로 칭송받다. 또 그가 4년 만에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그 후의 '최후의 심판'은 회화 부문에서도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손꼽힌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그는 왕년하는 사와 시간들에 몰두했다.

봄의 문턱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로비에서 열린 철쭉꽃전시회를 찾은 어린이가 꽃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품 못뺀 교복값 상한제

정부, 20만1076원 책정했지만 권고사항일뿐… 실제론 30만~40만원 '거품'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교복 가격 상한제를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복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상한 가격은 권고 사항에 그쳐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 상한 가격은 전국 평균 20만1076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공동구매나 학교 주관 구매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동구매가가 17만~19만원으로 이뤄졌는데 셔츠나 치마 등 여벌을 더 추가할 경우 기본 25만원이 넘는다"며 "이는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로 4대 브랜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은 더 뛴다. 일반 구매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진현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정책위원장은 "디자인만 다를 뿐 원단에는 차이가 없지만 학교마다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조직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며 교복 업체의 가격 널뛰기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교복을 개인 구매할 경우 4대 브랜드(아이비클럽·엘리트·스마트·스쿨룩스)의 평균 가격은 재킷 9만8000~10만원, 조끼는 4만1000~4만2000원, 바지 및 치마 6만1000~6만5000원, 셔츠 및 블라우스 3만8000~3만9000원, 가디건 6만~6만1000원 정도다. 여기다 셔츠와 바지 및 치마 등 여벌을 추가할 경우 최소 33만6000원이며 많게는 40만원까지 육박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해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여건, 학부모, 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업계 간 경쟁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metroseoul.co.kr

'다나까'만 허용되는 체육과

"여학생은 화장금지" 서울 사립대 생활규정 논란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에서 화장 금지, 다나까 말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입생 생활규정 문서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의 A대학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게시판에 '생활체육학과 규정'이라는 인쇄물의 사진이 올라왔다.

인쇄물에는 신입생은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생활체육학과 14학번 ○○○입니다"라고 인사해야 하고 '다나까'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남자는 염색, 파마를 할 수 없으며 백팩만 가능하고 크로스백은 착용할 수 없다.

여자는 BB크림까지 가능하지만 화장은 금지돼 있으며 반바지·원피스·미니 밝은색 바지·치마·구두·워커·슬리퍼 등도 착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윤다혜기자

교수님과 셀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열린 '국악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조선시대 선비 복식(학창의)을 입은 졸업생들이 교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종합병원 1인실 최저 4만원 vs 최고 35만원

정부가 종합병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300개 이상 병상을 운영하는 110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임플란트 ▲양전자단층촬영(PET) ▲다빈치로봇수술 등 1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3곳을 포함한 총 1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의 가격이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병원에 따라 많게는 9배까지 차이가 남에 따라 마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110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중 1인실 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은 35만원으로 이는 최저 수준(4만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또 초음파 검사료도 5만~18만원의 분포를 보여 최고·최저 배율이 3배를 넘었으며 MRI(24만7000~79만2000원)와 응등 PET(55만~137만1000원) 역시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 정보는 지난해 12월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후 변경된 가격은 신청을 받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

코이카 드림 봉사단 발대식 14일 오전 서울 염곡동 월드비전조교육원에서 열린 코이카 드림 봉사단 1기 발대식에 참석한 25명의 단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1기 드림봉사단은 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베트남 등 4개국에서 8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코이카 제공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시 도봉구는 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 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계리직공무원 필기시험 실시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이 주관하는 2014년 9급 공무원(계리직) 공개경쟁 필기시험이 15일 서울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총 5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만275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6573명이 실제 시험을 치러 6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법원 "이웃 여자와 잦은 문자 불륜 아니다"

이웃집 유부녀와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은 17일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많게는 한 달에 100여 건이 넘게 이웃집 여자와 음성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소송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C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C씨의 부인 D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둘의 관계를 불륜으로 생각해 남편을 상대로 2012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윤다혜기자

metro Russia

В центре Москвы купидон-профес

metro USA

behind Wellesley sculptu

미 대학교정 '몽유병 남성' 반라 조각상 논란

미국 매사추세츠주 웰즐리에 위치한 웰즐리대학 앞 반라의 조각상에 대한 철거 논란이 한창이다. 문제의 조각상은 조각가 토니 마텔리가 제작한 것으로 몽유병에 걸린 남성이 속옷만 입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 조각상은 너무 정교해 반라의 남성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마텔리는 최근 메트로 보스턴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조각상 중 가장 평범한 것인데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metro Ecuador

멸종위기 '핑크 이구아나' 번식 프로그램

에콰도르가 멸종 위기에 처한 '핑크 이구아나'의 번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핑크빛을 띠는 희귀 이구아나는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1986년 처음 발견됐다. 같은 섬에 서식하는 다른 이구아나종은 길이가 약 70cm인 데 반해 핑크 이구아나는 목뒤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10cm에 달한다. 현재 450~500마리가 갈라파고스제도에 서식하고 있다.

모스크바 명물 '20대 큐피드'

거리에서 꽃 팔던 청년, 광대 분장에 날개 달고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사랑' 권하고 나눔

러시아 모스크바에 매일 아침 '사랑의 큐피드'가 등장해 화제다.

얼굴에 광대 분장을 하고 등에는 앙증맞은 날개를 단 '모스크바 큐피드' 알렉산드르(25). 거리로 나온 알렉산드르는 무표정한 시민들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으로 웃게 만든다. 아이들에게는 즉석에서 만든 재미난 모양의 풍선을 선물하며 엄마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항상 표현하라고 말한다.

거리를 걷는 연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도 큐피드의 주요 일과 중 하나다. 알렉산드르는 연인들에게 "손을 잡아라"고 말하며 "얼마나 연인을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사랑을 가득 담은 키스를 하라"고 주문한다.

그는 아르바트, 카메르게르스키, 아호트니랴드 등 모스크바 주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 복이 와요. 미소를 지으세요"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직접 쓴 사랑의 시를 낭송하기도 한다.

알렉산드르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왠지 내 얘기를 다 듣는 것 같다"며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모스크바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알렉산드르는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나와 큐피드로 활약했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그를 알아보거나 먼저 자연스레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꽤 있다.

모스크바 시민 파벨은 알렉산드르에게 다가와 "고맙다"면서 "큐피드 덕분에 연인과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혼에 골인해 아이도 생겼다"며 활짝 웃었다.

7년 전 러시아 극동부 아무르주에서 모스크바로 온 알렉산드르는 그동안 거리에서 꽃을 팔았다. 그는 큐피드가 된 이유에 대해 "꽃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며 돈보다 따뜻한 사람의 감정을 파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감정보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큐피드 일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큐피드를 기억해주면 좋겠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리야 부이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최고 높이 632m 中 상하이 타워 러 청년 맨손 정복

러시아 청년 바딤 막호로프와 비탈리 라스카로프가 중국 상하이 타워에 몰래 오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올라간 높이는 약 632m. 두 사람은 지난 13일 상하이 타워 꼭대기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최근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에는 두 사람이 한밤중에 상하이 타워 건설 현장에 보호장치도 없이 들어가 건물 꼭대기의 타워크레인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중국 춘절(春節) 연휴 기간을 '작전 개시일'로 선택, 2시간 만에 건물 꼭대기에 올랐다. 또한 이들은 원하는 화면을 촬영하기 위해 18시간 동안 건물 꼭대기에 머무르며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상하이타워 관계자는 "두 청년이 건물에 올라갈 때는 춘절 연휴 기간이어서 공사를 잠시 중단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현장에 어떠한 안전보호장치도 없었다. 이 청년들은 그냥 맨손을 타고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하이 푸둥(浦東) 경찰은 "현재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건설 현장에 관리 강화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건설 현장에 진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상하이의 마천루가 '스파이더맨'의 표적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 한 프랑스 남성도 높이 420.5m의 상하이 진마오(金茂) 타워에 불법으로 올랐다가 구속됐다.

설계 높이 632m인 상하이 타워는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빌딩(508m)보다 124m 높다. 지난 2008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2015년 완공 예정이다.

/정리=조선미기자

공공기관 작년 복리후생비 7000억 지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2만8779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1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직원 1만9270명의 한전이 1002억원, 9437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 650억원, 6520명인 LH가 417억원, 4042명인 수자원공사가 2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환산하면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마사회(1311만원), 한전기술(998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코스콤(937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주영기자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46.36 (+6.08)	522.00 (-0.58)	2.85 (+0.01)	1060.10 (+0.80)

뉴스&뉴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현금 거래가 많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등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 발행 대상이 확대되며 어길 시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박철중기자

카드 전화영업 24일 재개

● 카드업계가 오는 24일부터 전화영업을 재개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보험사의 전화 영업을 허용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카드사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 카드사는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국민, 롯데, NH농협카드를 제외한 전업카드사인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0-2500
독자센터 (02)721 9821
1999년 5월 24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96

7조6000억 '수당 폭탄' 반대 탄원

"휴일근로, 연장수당 중복할증 큰 부담" 중기중앙회·경총, 대법원에 서류 제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휴일근로와 관련,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시 기업이 일시에 부담하는 추가임금이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 할증 관련 소송사건이 계류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양 기관은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함께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 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 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 할증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매년 1조8977억원가량의 추가 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 비용과 통상적인 임금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7조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 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복 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 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노사 모두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고,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점적 형사적 제재가 취해진 사례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1일 중기중앙회와 경총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최익균기자 kcufi@metroseoul.co.kr

World Best

STX그룹 이번엔 내부비리… 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STX그룹 및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STX남산타워에서 한 직원이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비틀비틀

시세 폭락해 고점의 21%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17일 한때 220.2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최고점의 21% 수준이다.

비트코인 시세는 이달 초 결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마운트곡스는 7일 기술적 결함 때문에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 2.0' 관리자가 "해킹으로 고객들의 거래에 쓰이던 4474.27비트코인(약 270만 달러)을 도난당했다"고 공지하면서 대폭락이 시작됐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결제 수단'이라는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또 실크로드 2에서 비트코인을 훔쳐 간 해커들이 이를 실물 화폐로 환전하려고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트코인 폭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조선미기자

'이라크 재건시장' 중소기업 피해 속출

현지 바이어 사기 증가

중동의 신르네상스 시장으로 각광받는 이라크 재건 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황을 띠고 있다. 한화건설의 80억 달러 신도시 건설 수주 이후 T-50 고등훈련기와 대우건설의 알파오 항만사업 수주 등 올 한 해 우리 기업의 수주 금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의 이라크 중소 재건 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바그다드 상인으로 유명했던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발주처의 농간으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이라크 재건 사기는 현지 무역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감소된 반면,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금 결제와 세금 문제 등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중소 재건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중소기업 애로 사항과 요청 사항은 월평균 100건에 육박한다. 이 중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애로 사항이 2012년 5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3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50% 이상은 대금 결제와 세금 문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는 계약을 미끼로 제품 기술 정보와 가격 정보 입수 후 잠수 타기, 제조업이 아닌 한국 무역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커미션 요구, 발주처 사칭 등 다양하다. /유주영기자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유로존 경기 '완연한 봄'

4분기 GDP 0.3% 증가 '3분기째 오름세' · 주요국 성장률도 예상치 '훌쩍'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재정위기로 침체됐던 유럽경제가 살아나면서 강한 수요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 통계청은 유로존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GDP는 지난해 2분기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0.3% 증가를 기록한 뒤 3분기 연속 오름세다.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유로존 1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0.3%)보다 상회한 수준이다. 2위인 프랑스의 4분기 GDP 성장률도 0.3%를 기록, 예상치(0.2%)보다 높았다. 네덜란드 GDP 성장률 역시 0.7%를 기록했다. 재정난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에글렌 예르만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경제가 3분기 연속 성장했는데 5대 주요 국가 경제가 동시에 성장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로존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종료와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진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 호조세에 힘입은 수출 주도의 성장이었다"며 "올해는 미국 금융위기 날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수축된 내수가 회복될 차례"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12월 자동차 판매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하며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석유수출기구(OPEC)도 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으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OPEC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1.2%, 일평균 109만 배럴 증가한 9098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105만 배럴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OPEC 측은 "유럽의 경제 회복 추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상향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 대해 17일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정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익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카드 재발급과 결제, 한도 내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연합뉴스

지난 5년 개인정보 1억919만건 유출

금융사에서 20건 사고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19개 금융사에서 20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 모두 1억919만 건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정보 유출은 해커, 용역직원, 내부 직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USB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이전에는 모두 내부 직원과 해커에 의한 유출이었지만 올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사건은 용역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해커나 용역직원은 대부분 인터넷, USB를 통해 정보를 빼내간 반면 내부 직원은 e메일, USB, 출력물 등으로 유출경로가 다양했다.

한편 금감원은 2009년 이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총 19개 금융회사에 대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건, 2011년 10건, 2012년 3건, 2013년 1건의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2014년에는 3개 카드사 등 5개사에 대해서 현재 검사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13개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 경고 또는 기관 주의, 6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으며 임직원에 대해 면직 4명, 감봉 14명 등 대상 임직원 84명 중 18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박윤호기자 [illegible]

정 듬뿍 담은 초코파이 받아들고 "하하하" 17일 서울 응암동 서울시 꿈나무마을 복지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이마트와 오리온이 기부한 초코파이 나눔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신세계 제공

10대 그룹 시총 693조 8566억

전년말 대비 5.32% 감소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지난 12일 기준 전년 말 대비 5.32% 감소한 693조85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상위 10곳(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과 주가 등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10대 그룹의 시총 비중은 전체의 54.66%로 전년 말 56.15%보다 1.48%포인트 줄어들었다. 10대 그룹 가운데 한진의 시총만 5.01% 늘고 현대중공업(-15.04%), GS(-10.07%), LG(-9.38%) 등 나머지 9개 그룹 시총은 모두 감소했다.

전체 시총 상위 그룹은 삼성 302조224억원, 현대차 141조9956억원, SK 79조2893억원 등의 순이었다.

10대 그룹 소속 상장종목 중 전년 말 대비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것은 한진그룹의 '한진'으로 33.86% 상승했다.

이어 GS 소속 '코스모신소재'가 27.68%, 한진그룹의 '한진칼'이 27.44%, 현대차의 '현대하이스코'가 25.33%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은 18.98% 떨어지며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대차의 '현대위아'(-17.11%),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중공업'(-16.73%), LG의 'LG생활건강'(-16.06%) 등의 순이었다.

/김현정기자

카드 포인트도 '상속'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소지자의 상속인이 포인트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이 이뤄진다고 17일 밝혔다.

3월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 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된다.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와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개선해 고객의 오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개인 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김민기기자

'LTE 신대륙' 중국 쟁탈전

주춤한 여타 국가와 달리 올해 5배 더 클 전망 — 전세계 스마트폰 업계 '눈독'

중국 LTE 시장을 잡아라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에 내려진 특명이다. 성장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 LTE 시장이 올해에만 5배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올해 중국 LTE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보다 547% 성장해 1억3500만 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이는 올해 중국 휴대전화 전체의 36%에 해당한다. 10대 중 3~4대는 최신 LTE 스마트폰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다.

중국 LTE 시장이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돼 현재 점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이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SA는 내년에 중국 LTE 폰 판매량이 2억3100만 대로 처음으로 전체 휴대전화의 과반을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4년 뒤인 2018년에는 3억6000만 대로 전체 휴대전화 10대 중 8대가 LTE를 지원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LTE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고가 스마트폰 수요 포화로 성장 정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스마트폰 업계에는 일단 희소식이다.

현재 중국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S4와 갤럭시S4 미니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도 패블릿(휴대전화와 태블릿 PC의 합성어)인 G프로의 변종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애플 역시 최근 차이나모바일을 통해 아이폰 공급을 시작하며 중국 시장 점보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를 비롯해 중국의 애플로 통하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중국 업체들은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서 삼성·LG 애플 등 스마트폰 업계 거물들과 맞상대를 벌일 정도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괄목상대를 거듭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전 세계 LTE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한 삼성·LG·애플과 중국 업체들 간의 혈투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국현기자 kniae@metroseoul.co.kr

"3G폰 오랜만에 나왔네" 삼성전자는 보급형 3세대(3G) 스마트폰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를 SK텔레콤을 통해 오는 19일 출시한다.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하지 않는 이 제품은 4.7인치 LCD 화면을 장착하고 제품 하단의 홈·메뉴·취소 버튼을 터치스크린 방식이 아닌 하드키로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MS코리아 제임스 김 "한국 인재가 최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2014 글로벌 커리어 포럼'에서 제임스 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임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적으로 한국의 인재가 전 세계 최고의 인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제공

KTH 4년만에 흑자 전환

T커머스 매출 가시화 등 요인

'만년 적자' 기업으로 익숙한 KTH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비결은 뻔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적자 사업 정리', '수익 사업 지속'에 있다.

KTH는 17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303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74억원 적자에서 22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KTH는 지난 3년간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적자 요인을 감소시키고 기존 수익 사업인 콘텐츠 유통과 SI·SM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다.

또 신규 사업인 T커머스의 상용 서비스 개시로 인한 매출 가시화도 이번 매출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영화 공급 등 콘텐츠 유통 사업이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한편 양방향 데이터 기반 TV쇼핑 방송인 T커머스 사업은 일평균 취급고 2억원을 상회하며 2013년 연간 취급고 200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자회사인 KT커머스를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액은 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했고 영업이익 70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 /박성훈기자 zen@

"점심시간 15분… 한달 점심값 10만원"

직장인들이 점심 챙기기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6%(393명)가 실제 점심 식사 시간은 15분 이내라고 답했다. 10분 내(23%), 15분 내(30.2%)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이 다니는 회사의 점심 시간은 1시간이라는 곳이 67%로 과반을 차지했다. 1시간 미만(27.0%), 1시간 이상~1시간 반 미만(5.0%), 1시간 반 이상(1.0%)인 곳도 있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의 상당 부분을 다른 일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식사 후에는 커피나 차를 마신다는 직장인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처리(25.1%), 낮잠(15.5%), 동료와 수다(10.9%), 산책(7.5%)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장소로는 사내 식당(43.7%)과 외부 식당(40.8%)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8.8%)도 꽤 있었다.

한 달 점심값으로 1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42.4%로 절반에 가까웠다.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33.7%),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15.8%), 20만원 이상~25만원 미만(4.8%)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현기자 kniae@

구직자 "주5일제·연봉 2600만원" 희망

취업포털 사람인 설문 — 상사의 조건 '업무 능력자'

구직자들은 주 5일제를 준수하면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39명을 대상으로 첫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40.4%로 1위를 차지했다.

복리후생(13.1%), 근무 환경(12.2%), 성장성·비전(8.9%), 조직 기업 문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연봉 수준은 2400만~28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2000만~2400만원 미만(28.6%), 2800만~3200만원 미만(18.3%), 2000만원 미만(8%), 3200만~3600만원 미만(7%) 등의 순이었다. 희망 연봉 평균은 2661만원으로 집계됐다.

희망하는 복리후생으로는 주 5일제 근무 준수(76.5%, 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62.9%), 연·월차 제도 시행(55.9%), 보너스 지급(50.2%), 사내식당 및 식비 지원(37.6%), 자기계발비 지원(34.7%) 등이 있었다.

조직 문화 분위기는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문화(36.6%)를 첫 번째로 꼽았다. 시생활 간섭 없는 공과 사가 확실한 문화(18.8%), 가족친화적 문화(13.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첫 직장에서 만나고 싶은 이상적인 상사의 유형으로는 '업무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능력자 유형'(23.5%)이 1위에 올랐다. 아낌없는 칭찬으로 기운을 북돋워 주는 유형(16.4%), 변화와 혁신으로 나를 성장시켜주는 유형(14.1%), 믿고 일을 맡겨주는 유형(11.3%) 등을 꼽은 구직자도 많았다. /이국현기자 kniae@

직장인 69% "나는 서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8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스스로 서민층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빈민층이라고 답한 직장인도 13.5%에 달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17%, 상류층이라고 한 직장인은 0.6%에 그쳤다.

계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장인 65.2%는 연봉 등 소득 수준을 꼽았으며 삶의 여유(38.5%)와 부채 수준(30.0%)도 중시했다.

중산층 자격 조건으로는 여행을 다닐 시간적·금전적 여유(53.7%)를 선택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안정적인 직장(44.6%), 부채 없는 25평 이상 주택 보유(41.0%), 매월 일정한 소득(40.6%)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직장인도 있었다. /이국현기자 kniae@

KT "국제전화 001 선물 쏩니다" KT는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다음달 5일까지 국제전화 001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국제전화 001 새 출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T 제공

국산차 '할인 레이스'

현대차·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판촉 경쟁

설 수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다양한 판매 조건을 내걸고 고객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현대차는 'H-오일 프로그램' 이벤트를 새로 마련했다. 현대 쏘나타(YF) 가솔린 모델을 출고하는 개인 고객이 현대카드M으로 주유소를 이용하면 기름값을 절반 지원해 준다. 월 주유 한도는 없고 6개월간 주유 금액 120만원이 한도다.

전체적인 할인 조건은 박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할인이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승용차도 할인 조건이 없다. 대신 쏘나타는 1월에 30만원 할인되던 금액이 70만원으로 늘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200만원)와 i30(50만원), 벨로스터(20만원)의 할인 조건은 1월과 같다.

기아차는 K시리즈 위주의 판매 조건을 내걸었다. 'K시리즈 1·2·3 초저금리 할부'는 K3·K5·K7을 할부 구매하는 고객에게 1.9%(24개월 할부), 2.9%(36개월 할부), 3.9%(48개월 할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초저금리 할부 상품이다. 이는 기존 할부금리 대비 최대 4%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로, K시리즈 주력 트림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K3 100만원, K5 136만원, K7은 167만원 정도 저렴하다.

또한 기아차는 2월 개인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나비 블랙박스(G700 32G 2채널)를 9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원하는 고객은 3월 10일까지 기아차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반값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은 쉐보레 고객 감사 페스티벌을 마련하고 스파크EV, 다마스, 라보, 카마로 외 전 차종에 대해 최대 80만원을 할인해준다. 캡티바와 말리부, 크루즈, 올란도의 최고급 모델은 8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베오는 10만원 할인된다. 캡티바와 말리부 LTZ는 선수금 10만원에 1.9% 할부(12~36개월)가 가능한 초저리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월 한 달간 SM3, SM5, SM7을 구입하는 고객들 중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에 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띠' 만 나이에 1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말띠 해 특별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입 고객이나 가족 중 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구입 고객의 나이에서 가장 가까운 말띠 해의 나이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르노삼성자동차 제품을 구매한 횟수에 따라 재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업계 최고의 재구매 조건도 제공한다. 또한 QM5 Neo 론칭을 기념해 2월 중 QM5 Neo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LED 룸 램프 세트'를 선물한다.

쌍용차는 렉스턴 W 및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는 고객이 노후 차량을 반납하면 최고 100만원을 보상해주는 '노후차 체인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경쟁사 레저용 차량(RV) 보유 고객이 렉스턴 W 및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

/장의명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추진

"한류 재도약 재원 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를 위해 KBS 수신료를 인상해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초고화질(UHD) TV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한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대부업자 방송 스팸 등 차단에 주력한다.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축소된 KBS 광고를 타 방송사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신료 인상에 따라 EBS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두 지도 늘릴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는 UHD TV 세계화를 위해서도 미래부와 함께 UHD 콘텐츠·기기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방통위는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와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키로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과 관련, 과징금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이재영기자 ljy0403@

바르셀로나 MWC 가면 SKT 와이파이 '빵빵' SK텔레콤은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 전시장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가스보일러 5개사 담합…5억5600만원 벌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이다. 이들 5개사는 가스보일러 국내시장 점유율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해기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업체 간 공조 분위기는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특판 업무 담당자 모임인 '특우회'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 금액은 귀뚜라미가 1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1억46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9800만원), 대성합동지주(2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황재용기자 bos@

직무능력 향상 장학금 직장인 38% '금시초문'

직장인 대부분이 직업훈련 등 교육을 받으면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환급·지원해주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계발이 가능한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17일 직장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직장인 122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환급제도는 63%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장학금과 내일배움 카드제를 안다는 응답자는 각각 38.7%, 22.8%에 그쳤다.

/이국명기자 km@

"프리미엄 4000만원"… 위례 떴다방 수십개

단속 비웃듯 불법영업
건설사들도 '나몰라라'
"거래시 법보호 못 받아"

위례신도시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부추기는 것은 불법 전매.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을 사고파는 게 금지돼 있지만 떴다방들은 단속 당국을 비웃으며 수요자를 유혹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는 떴다방에서 설치한 부스만 수십 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 14일 문을 연 현대엠코 센트로엘 견본주택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개업자만 20명 남짓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에게 달려가 연락처를 받거나 부스로 이동해 일대일 상담을 받길 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스로 가면 대기 중인 또 다른 중개업자에게 예상 경쟁률, 예상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전매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들을 수 있다.

문정동에서 왔다는 A떴다방 관계자는 "센트로엘 전매가 풀리는 1년 뒤쯤에는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며 "조기에는 1000만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서두르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에서 원정 온 B떴다방 관계자도 "당첨이 되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주고, 당첨이 안 되면 최대한 싸게 사줄 테니 어떤 경우라도 일단 연락만 달라"며 "센트로엘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분양됐던 송파 쪽 물건도 대량으로 갖고 있으니 잘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친절한 상담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A떴다방 관계자는 "내가 위례는 물론, 장지 마곡지구 등에서 100건도 넘게 분양권을 거래시켰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며 "다 노하우가 있으니 걱정 마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불법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불법 전매 사실을 알고 있는 건설사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속은 우리 일도 아닐뿐더러 떴다방 때문에 청약 열기가 달아오른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입주 시점에 기래이 거래한 가격보다 크게 높거나 낮을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당국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내 청약 자격도 제한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불법 거래인 만큼 향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인근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근처에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히딩크 호텔' '센시티'—아파트 애칭마케팅 바람

김희선 백, 전승이 귀스틱 등 소비재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던 애칭 마케팅이 분양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선보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이름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보다 빠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애칭을 붙여주는 것이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이 제주도에 분양 중인 '호텔 리젠트 마린 제주'는 광고모델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이름을 딴 '히딩크 호텔'로 불리고 있다. 월드컵 4강을 맞아 우리에게 친근한 히딩크 감독을 모델로 쓰면서 이름 애칭화됐다.

리젠트 마린 김욱 분양소장은 "최근 제주도에 많은 호텔들이 공급되면서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쉽지 않았는데 히딩크 호텔이라는 애칭이 붙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 시작했다"며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상품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이 성동구 성수동에 공급할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도 브랜드 확정 전 '프로젝트 D'라는 애칭을 사용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부르기 쉬울 뿐 아니라 두산의 D를 이니셜로 사용하면서 고급 아파트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 중인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은 '센시티'라는 줄임말이 애칭이 됐다. 특히 '센' 이라는 어감이 다 단지보다 '더 강하다', '우월하다'라는 이미지를 상징해주면서 마케팅에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짧고 정감 있는 애칭을 활용해 해당 단지를 각인시키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경기도 아파트 경매 9.8대1 역대 최고

주택시장 회복 기대·전셋값 급등에 전세난민 몰려

최근 1년간 수도권 경기지역 경매아파트 평균 경쟁률

주택 시장 회복 기대감과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으로 연일 경매 법정이 북적이는 가운데, 경기도 경매아파트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수도권 경매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경쟁률)는 8.4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보다 2.4명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명으로 200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이 7.2명으로 2011년 1월 8.2명 이후 가장 높았고, 인천은 7.8명을 기록했다.

개별 지역별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곳도 10곳이나 됐다. 경기지역에서 ▲이천 13.7명 ▲부천 12.3명 ▲화성 11.5명 ▲안양 11.5명 ▲남양주 11명 ▲오산 11명 ▲의왕 10.9명 ▲용인 10.6명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 성북구 10.5명, 인천 연수구 12.3명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 경쟁률이 서울·인천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는 전셋가 급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전세가 비율은 서울(62.1%), 인천(60.4%)보다 높은 64.8%에 이른다. 군포·의왕 등 일부 지역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상태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낙찰가율도 고공 행진이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4.3%로 2009년 11월 85%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작년 동기 76%에 견줘 8.3%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박선옥기자

대우건설 해외수주 500억↑

대우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두 번째로 해외 누적 수주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종전 기록을 3년 단축한 최단기간 달성 신기록이라 더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지난 11일 약 1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해외 건설 누적 수주 505억97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76년 에콰도르의 키토시(市)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47개국에서 423건의 공사를 수주하며 38년 만에 이룬 쾌거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중동지역 대신 미개척지였던 아프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전반이 넘는 263억 달러를 따냈다.

대우건설의 올해 해외 수주 목표는 사상 최대인 72억 달러다. /박선옥기자

집 안사고 전·월세 사는 고소득층

고소득층이 최근 6년간 부동산 구입 비용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출 비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중위 소득의 150% 이상)의 연평균 부동산 구입 비용은 2006년 528만9480원에서 2012년 371만400원으로 29.9% 감소했다.

반면 이들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132만6840원에서 196만1400원으로 47.8% 늘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부동산 구입 비용은 29만5080원에서 63만1200원으로 113.9% 증가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쓴 돈은 36만6240원에서 19만9680원으로 45.5% 줄었다.

또 중소득층(중위 소득의 50~150%)은 부동산 구입 비용이 225만1680원에서 126만1560원으로 44.0%,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100만800원에서 89만2560원으로 10.8% 감소했다. /박선옥기자

'글로벌 먹방女' 5800만명이 군침

IT Cafe

아프리카TV BJ 박서연씨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먹는 방송(먹방)'에 쏠렸다.

지난달 30일 미국 CNN이 '한국의 온라인 문화 트렌드: 귀여운 소녀의 먹는 모습을 돈 내며 보기'를 보도한 것이다. 연예인의 먹방뿐 아니라 일반인이 인터넷 먹방을 진행하면서 억대의 수익을 올린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CNN도 주목한 '귀여운 소녀'

CNN이 '귀여운 소녀'로 소개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인기 먹방 BJ 박서연(34·방송명 더디바)씨를 만났다.

방송 3년차인 그녀의 먹방 누적 시청자 수는 5817만여 명. 일일 시청자 1만여명, 하루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방송 시간도 어느새 누적 1만 시간을 넘겼다. 매일 저녁 치킨 4마리, 대하 111마리 등의 수천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그녀의 체중은 키 170cm에 53kg. 마른 체구에서 나오는 털털한 대식(大食) 방송으로 박씨는 지난해 연말 열린 '아프리카TV 2013 방송 대상'에서 먹방 부문 초대 최우수 BJ에 선발됐다.

박씨의 먹방 인기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CNN 전파를 탄 뒤로 러시아, 아랍 등지에서도 인터뷰 문의가 올 정도다. 호기심에 시작한 먹방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박씨를 세계적인 유명 인사로 만들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먹방 BJ '더디바'로 활동하는 박서연씨가 푸짐한 저녁상을 차린 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녀린 체구의 박씨는 매일 저녁 3~4인분의 음식을 혼자서 먹는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아프리카TV

하루 2시간 방송 식비 10만원 · 수입? 먹고 살만
날 보며 거식증 극복 댓글 등 소통이 인기 비결

◆ 먹방 유료 시청… 뜨는 이유

박씨는 "해외에서는 남의 식사 모습을 돈을 주면서까지 보는 먹방 문화를 신기해한다"면서 "일반인도 방송 진행자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1인 미디어 환경도 큰 관심을 얻는 중"이라고 말했다.

먹방의 인기 요인은 소통에 대한 갈증 해소와 대리만족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씨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먹는 것"이라면서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같은 시간에 누군가와 무언가를 먹으면서 공유하는 원초적 감정이 먹방 인기를 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씨의 먹방 시간에는 댓글이 물밀 듯 올라온다. '언니 따라 치킨 시켰어요' '혼자 살고 있지만 친구와 밥 먹는 기분이에요' 등의 시청자 댓글을 보면서 박씨는 라디오 진행하듯 대화를 나눈다.

박씨는 "나의 푸짐한 식사 장면을 보면서 거식증을 극복했다는 쪽지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시청자들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먹방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움을 얻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녀의 하루 먹방용 음식비는 평균 6만~10만원으로 최대 70만원을 호가한다. 저녁 메뉴는 그날 입맛이 끌리는 대로 결정한다. 방송은 오후 7~8시 사이에 시작해 2시간가량 진행된다.

박씨는 "시청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달 음식을 주로 선정한다"면서 "다만 고기는 꽃등심만 먹는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먹어야 방송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월급을 뛰어넘는 한 달 식비는 아프리카TV의 시청료 개념인 '별풍선'과 각종 협찬으로 충당한다. 음식뿐 아니라 박씨의 방송용 의상과 배경 소품까지 협찬 문의가 쇄도한다. 박씨는 '먹고 남을 수준'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모든 협찬은 사전에 꼼꼼히 시식하고 이용해본 뒤 결정한다. 나를 믿고 음식을 선택하는 시청자가 많고 미성년자 비율도 높아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먹방의 가학성 논란에 대해 그는 "먹고 토한다든가 음식을 흘리거나 뿌려서 먹는 등 혐오감을 주는 방송은 안타깝고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씨는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느냐. 사람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 먹방에 더 열광하는 것 같다"면서 "위(胃)가 허락하는 데까지 방송하고 싶다"고 웃으며 쿠키를 하나 집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한뼘 크기 휴대용 엠프 헤드폰 휴고 음질 탁월

급변하는 모바일 시대에 한 뼘 크기의 휴대용 엠프로 홈시어터급 사운드를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됐다.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제조사 코드 일렉트로닉스는 17일 휴대용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DAC) 겸 헤드폰 엠프 휴고(HUGO)를 17일 처음 선보였다.

휴고는 aptX 코덱을 이용해 케이블 없이 디지털 신호를 DAC회로로 바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맥 OS나 윈도 OS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자체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운영체제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입출력 기술로 스튜디오 마스터 품질의 DXD 음악 파일도 재생이 가능하다. 샘플률 44.1㎑~384㎑(PCM) 범위에서 디코딩해 CD 수준의 고품질 음악을 제공한다.

내장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고는 2~4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이상의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김학술기자 kimsh@

LG유플 '목소리 재능 기부자' 오디션 LG유플러스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제작에 [illegible] 성우로 참여할 목소리 재능기부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을 2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페북 올린 글로 연애 단계 짐작?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만 봐도 남녀의 연애 단계를 알 수 있다.

커플이 되기 직전 상대편에게 쓰는 글은 가장 많았다가 이후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애 85일째가 되면 게시글은 급감했다.

17일(한국시간)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연구 조직인 '페이스북 데이터 사이언스'에 따르면 커플이 된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이의 타임라인 글쓰기 빈도는 커플 선언 12일 전에 하루 평균 1.67건으로 가장 높았다.

페이스북은 결혼·연애 상태를 '싱글'에서 '연애 중'으로 바꾸고 기념일을 입력한 사용자 중 싱글 상태가 100일 이상, 연애 중 상태가 100일 이상 지속된 이들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나중에 연인 관계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게시물 교환은 '싱글' 상태에서는 서서히 조금씩 증가하다가 연애 관계가 되고 나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 게시 후 85일째가 되는 시점에는 두 사람의 게시물 교환이 최고치 대비 8.4% 낮은 하루 1.53건으로 줄어들었다.

/배상훈기자

외장하드 '시큐리티…' 출시

노트북, 태블릿PC가 대중화되면서 외장하드(HDD)의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다.

IT기기의 휴대성이 강조되다 보니 자체 스토리지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외장하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장하드의 쓰임새가 커지면서 제조사마다 활살기를 장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체로 외장하드의 3대 스펙인 보안, 데트워킹,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종 외장하드 업체 세븐틱은 숫자키가 전면에 달린 '시큐리티 HDD S2'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첨단 암호화 알고리즘을 탑재해 제3자가 임의로 HDD를 분리해 PC에 연결해도 저장 데이터를 볼 수 없다. S2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다.

1~32자리의 다양한 숫자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나 도어락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3X4 숫자키 배열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1TB 기준 13만9000원.

/배상훈기자

'와이어리스 플러스' 편하네

USB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아도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화를, 그것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다.

씨게이트의 '와이어리스 플러스' 덕인데 이 녀석은 저장된 콘텐츠를 무선 스트리밍 방식으로 최대 8대의 스마트 기기에 전송한다. 무선 인터넷망만 갖춰지면 500편의 영화를 가족, 친구와 데이터 사용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셈이다.

외장하드의 용량만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저장 공간이 커지는 것과 다름없다. 1TB 기준 23만원대.

소니 초슬림 'HD-SG5' 눈길

소니코리아의 'HD-SG5'는 수려한 외모가 특징이다. 8.7mm의 초슬림 두께와 130g의 가벼운 디자인은 여성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두께만 놓고 보면 동급의 경쟁 모델보다 절반가량 얇다.

핸드백이나 슈트 주머니에 넣어도 부담이 없다. 특히 세련된 알루미늄 메탈 소재의 프레임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소니 로고를 더해 '또 하나의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2가지이며 가격은 500MB 기준 15만원대.

'액티브 4050', 오메가3로 혈관 건강 플러스!

좋은 오메가3 고르려면 원산지·부원료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40대 중반 회사원 한종현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얼마 전 받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끊지 못했던 술·담배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인데, 지방간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말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심근경색·뇌졸중·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액티브 중년 되려면 혈관 관리부터

한국 남녀 사망 원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혈관질환'은 신체 노화와 각종 질환의 주범이다.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액티브 4050'이 되기 위해서는 '혈관 관리'가 기본이다.

평소 혈중 지질 농도를 높이는 고칼로리·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 3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오메가 3는 불포화지방산의 종류 중 하나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만 체내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 오메가 3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메가 3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좋은 오메가 3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원산지와 함께 어떤 원료에서 오메가 3를 추출했는지 확인하는 것. 일반적으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등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원산지의 오메가 3가 선호되며 작은 어종으로부터 추출해야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원료도 중요한 체크 사항 중 하나인데, 오메가 3와 함께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민 성분이나 오메가 3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크릴과 같은 부원료가 들어가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DHA와 EPA가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메가 3는 생선의 비린 냄새 때문에 섭취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천연 오일을 첨가해 비린 냄새를 제거, 편하게 섭취하도록 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혈관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습관

타파웨어브랜즈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가 출시한 '오메가 3 플러스'는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주원료인 노르웨이산 '연조비'에서 추출한 오메가 3에는 EPA와 DHA가 1일 섭취량 기준 2000mg 함유돼 있으며, 깨끗한 노르웨이 바다의 정제어유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도와주는 '비타민 A'와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 오메가 3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

또한 이 제품에는 부원료로 '크릴'이 함유돼 있다.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난 작은 갑각류인 크릴은 인지질 형태의 오메가 3를 공급하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을 함유해 오메가 3를 보호해준다.

오메가 3 플러스는 오메가 3의 비린 맛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 오렌지 오일을 첨가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1일 2회 2캡슐씩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오메가 3 플러스는 전국 타파웨어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2월 한 달간 대리점에서 특별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www.tupperwarebrands.co.kr (080-023-8811) /박지원기자

깨끗한 원산지

작은 어종으로 부터 추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원료

신라면·너구리 '대학생 라면' 1·2위

선택기준 "면발보다 수프맛"

국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면 제품으로 신라면과 너구리가 1, 2위를 차지했다. 또 국내 대학생들은 라면 선택 기준으로 면보다는 수프의 맛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참여형 미디어 캠퍼스미디어와 대학생 커뮤니티 스펙업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스펙업 회원 11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총 1279표(복수 응답 가능) 중 농심의 신라면과 너구리가 각각 374표(29.24%)와 202표(15.79%)를 기록하며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불닭볶음면(138명·10.79%)과 짜파게티(136명·10.63%)가 각각 3위와 4위로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라면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 1438표(복수 응답)의 응답 가운데 '수프'가 620표(4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이라는 응답이 540표(37.55%), '가격' 49표(3.41%), 'CF' 14표(0.9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팀기자

황금돼지·다이아 커플링…빛나는 유혹

유통업계 파격 경품 쏟아져 스시로 '1년 쿠폰' 행운 기회

졸업과 입학에 소치올림픽까지 다양한 기념일이 넘쳐나는 2월을 맞아 외식·유통업계들은 반값 할인에 다이아몬드, 황금돼지 등을 내세워 공격적인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특수 시즌에도 좀처럼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체 열리지 않는 탓에 파격적인 경품과 할인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보다 파격적인 혜택과 고가의 아이템을 내걸고 고객에게 경품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부여하는 이른바 '시즌 특별 마케팅'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3월 2일까지 전 지점에서 '희망찬 신학기, 황금 복(福) 돼지' 행운 경품 행사를 벌이고 있다. 1등 당첨자에게는 1100만원 상당의 황금 복 돼지(200g)를 증정한다. 구매객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1등 외에도 2등(2명)에게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원을, 3등(10명)에게는 외식 상품권을 증정한다.

회전초밥 레스토랑 스시로는 오는 28일까지 3만원 이상 결제 고객 2만 명을 대상으로 '꽝'이 없는 100% 당첨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1등 100명에게 연간 50% 상시 할인권을, 2등 200명에게는 연간 30% 할인권을, 3등 300명에게는 '2만원 식사권', 4등 500명에게는 '1만원 식사권'을 증정한다. 5, 6등에 당첨된 1만5000명에게는 누룽지밥과 고기덮밥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탐앤탐스는 3월 14일까지 달콤한 메뉴 인증샷으로 간단하게 응모할 수 있는 '스윗러브 이벤트'를 탐스 놀이터에서 벌인다. 탐앤탐스 매장에서 구매한 달콤한 메뉴(케이크, 음료, 디저트 등 달콤한 맛 모두 포함)의 인증샷과 함께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응모할 수 있다. 인증샷과 함께 가장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작성한 1명을 추첨해 D102 다이아몬드 커플링과 탐탐 리미티드 에디션 미미박스를 선물하며, 이 밖에도 씨언트스코트 백팩, 허니버터브레드 세트 등 총 58명에게 풍성한 경품이 제공된다. /정책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겨울왕국, 마지막 유혹

올겨울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에 스키장들이 겨울이 가기 전에 스키와 스노보드를 한 번이라도 더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사진)**가 오는 23일까지 학생·생일자·제휴카드 소지자·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또 스키월드에서는 왕성한 '방셈 새벽 특가'도 준비됐다.

할인 이벤트와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방셈 새벽 특가의 렌탈 패키지(리프트+렌탈) 가격은 일~금요일을 기준으로 새벽권 3만5000원, 방셈권은 4만원이다. 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현장에서 학생증만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일~금요일을 기준으로 새벽권은 2만9000원, 방셈권은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는

스키 리조트 시즌 막바지 다양한 할인·경품 마케팅

100% 당첨되는 행운 복권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휘닉스파크 리프트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진 시까지 복권을 증정하는 이번 이벤트는 스키하우스 매표소에서 진행되며 2014~2015시즌 시즌권, 객실 이용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휘닉스파크는 야간 시간대에 스키나 보드를 즐기려는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백야 리프트권'을 판매 중이며 리프트권과 객실·조식을 묶은 스키 패키지도 마련했다.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는 리프트 및 장비 렌탈을 40~50%까지 할인하는 준성수기 할인 행사 등 준비됐다.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는 할인 행사를 이용하면 리프트·장비 렌탈을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산리조트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여기에 10%가 추가 할인된다. 또 3월 3일부터 폐장일까지는 별도의 할인카드 없이 리프트·장비 렌탈이 50% 할인된다.

하이원리조트는 '1+1(원플러스원)이벤트'로 스키어들을 유혹하고 있다. 다음달 9일까지 어떤 종의 리프트권을 구입하든 동일한 리프트권 한 매를 더 지급받을 수 있으며 리프트권은 3월 10일부터 스키장 폐장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3월 2일부터 시즌 종료까지 타 스키장 시즌권을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도 해당 시즌권과 신분증을 함께 매표소에 제시하면 리프트권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앞으로 주중 반값 할인, 1만원 파격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송계찬기자 hova036@metroseoul.co.kr

올림푸스, 수술방 '신의 손' 도전

'썬더비트' '엔도아이 플렉스 3D'로 국내 외과시장 본격 공략

올림푸스가 에너지 통합 수술기구 '썬더비트(아래쪽 사진)'와 3D 복강경 '엔도아이 플렉스 3D(위쪽)'로 본격적인 외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올림푸스는 17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썬더비트와 엔도아이 플렉스 3D를 한국 시장에 공개했다.

사이토 요시타케 올림푸스 본사 본부장은 "수술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적은 출혈로 끝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썬더비트는 초음파 에너지로 조직을 빠르게 절단하고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로 빠른 조직 응고와 혈관 봉합을 해서 수술 시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엔도아이 플렉스 3D는 입체적인 구조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존의 2D 영상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 기존의 3D 복강경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구현해 수술의 정밀도와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비디오 내시경 앞에 탑재된 두 개의 센서(CCD)는 각각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역할을 하고 촬영된 영상은 즉각 고화질 3D 영상으로 변환된다. 의료진은 3D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내부를 입체 영상으로 관찰하며 수술할 수 있다.

다카이 다케시 올림푸스한국 의료사업본부장은 "썬더비트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에너지 기구로 외과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고 엔도아이 플렉스 3D는 앞으로 복강경 수술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올림푸스한국은 소화기 내과뿐 아니라 외과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 개발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연기자

홈플러스 프리미엄 한우 30% 할인 행사 홈플러스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전국 139개 점포에서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1+등급 이상 프리미엄 한우를 기존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홈플러스 제공

봄여행족 "강강술래 테이크아웃이요~"

포장상품 파격할인 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봄방학 기간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테이크아웃용 포장 상품을 파격 할인 판매한다.

이달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10팩·30인분)는 6만4800원, 소용량 세트(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도 30% 할인된 2만5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달 23일까지는 칠곡한우떡갈비(360g×1박스)와 흑염지판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코리아세트'는 2만8300원, 통등심돈가스(720g×1박스)와 모짜렐라돈가스(720g×2박스)로 구성된 '파이팅세트'는 3만6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하는 동계올림픽 응원 이벤트도 벌인다.

고양 능곡농협점은 이달 말까지 돼지양념구이(500g·1만2000원)와 판돈양념구이(500g·1만6000원) 포장 상품 1+1 행사를 벌이며 한우불고기(500g) 포장 상품도 62% 할인된 1만2000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e.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도서출판 갈렛의 도서도 증정한다.

'미러리스 카메라 무작정 따라하기'는 처음 구입한 초보 작가를 위해 충분한 이해와 사진 잘 찍는 법을 쉽게 소개한다.

/김민준기자

굽네치킨이 만든 맥주점 '94번가' 사업설명회

굽네치킨에서 새롭게 선보인 맥주전문점 '94번가(94 street)'가 오는 30일 오후 4시 신림직영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94번가'는 생맥주 저장통 자체를 대형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맥주전문점이다.

이곳은 굽네치킨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와 함께 직영점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사업 모델을 자신하고 있다. 또 넓고 모던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굽네치킨만의 다양한 치킨 요리 및 노하우로 일반적인 치킨 메뉴와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1644-9752)와 홈페이지(www.94st.co.kr)를 통해 받으며 예비 창업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벌이고 있다. /정혜림기자 jomwe@

77kcal! 그녀들 3번 생각한 저지방 요구르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칼로리 부담을 낮춘 저지방 농후발효유 '그녀들 3번 생각한 저지방 요구르트' 3종(딸기·블루베리·크랜베리)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풍부한 과육과 식이섬유를 3000㎎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100㎖ 당 77㎉로 낮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1800원. /정혜림기자

뉴스 & 뉴스

쌤소나이트 레드 'LINE 럭키찬스' 오픈기념 행사

● 캐주얼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레드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의 공식 이벤트 계정 'LINE 럭키찬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8일까지 LINE 럭키찬스 계정과 친구 등록을 하면 김수현 RED 스티커를 무료로 증정하고 총 500명에게 쌤소나이트 레드의 백팩을 선물할 계획이다.

LG 패션, 영국 브랜드 '슈프림비잉' 한국시장 출시

● LG패션은 영국 캐주얼 브랜드 '슈프림비잉'을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슈프림비잉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1999년에 등장한 브랜드로, 개성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케이트 보드, 힙합 음악, 그라피티 등에서 영국의 거리 문화를 의류와 액세서리로 표현한다.

커스텀멜로우 2030 여성라인 '젠티' 올봄 론칭

● 남성 캐주얼 브랜드 커스텀멜로우는 2014 봄·여름 여성 라인 '젠티'를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젠티는 이번 시즌 '젠틀레이디'를 콘셉트로 애쓰지 않아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제시한다. 특히 27~32세 여성을 타깃으로 질 좋은 소재의 필수 아이템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대병원, 말라위 환아 초청 무료수술

심장병 앓던 리자브에 새삶

이대목동병원이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치료에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은 심실중격결손증을 앓고 있던 프리실라 리자브를 초청해 지난 6일 심실중격결손 개심수술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실중격결손증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에 구멍이 생기는 병으로 프리실라는 퇴원 후 기아대책에서 마련한 숙소에 머물다 고향 말라위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매년 의료봉사단을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파견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그랜드 힐튼 서울 라운지바 '해피아워'땐 저렴

특급호텔의 라운지바의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는 '해피아워(Happy Hour)'를 이용해 저렴하게 라운지바를 즐길 수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직장인들을 위한 오후 시간대에 '해피아워 프로모션'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세트 메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새우·치즈 샐러드, 과일 마든앤 주 케이크 말이 중 해피아워 메인 메뉴로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음료는 무제한 생맥주 또는 와인 1병이다.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2인 세트 기준 5만원이다. /김지훈 기자

스포티 걸 옆 샤랄라 걸

올봄 여성패션에 2색 바람

고급스러워진 스포츠룩 시폰·실크로 여성미 강조

'활동적이거나 여성스럽거나'

올봄에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포츠웨어와 파스텔 컬러에 시폰 소재 등을 활용한 여성스러운 의상이 여성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패션연구소 노영주 연구원은 "이처럼 성격이 다른 패션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은 기호가 분명한 소비자들이 실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성성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몇 해 전부터 스포츠·아웃도어 트렌드가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시즌에도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스포츠룩의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스포츠룩에 고급스러운 소재와 장식이 더해진 럭셔리 스포츠룩이 대세로 떠올랐다.

레베카 테일러 캡션: 왼쪽부터 레연븐, 디어리, 빈폴 레이디스

렉앤본의 2014년 봄·여름 뉴욕 컬렉션에서는 테니스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옷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옥 부분이 깊이 파인 테니스 칼라 스웨터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기본 팬츠와 매치하기 쉬운 간편한 '아노락 점퍼'(모자가 달린 가볍고 짧은 재킷)도 다양하게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기처럼 가벼운 시폰이나 실크 소재 의상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데스킨스 따이리의 2014년 봄 컬렉션 역시 '레이어링과 봄의 컬러'라는 주제로 짧은 탱크톱과 스커트 위에 슬리 드레스를 겹쳐 입어 핑크·오렌지 등 봄을 나타내는 색상들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무리 유행이라지만 살결이 훤히 비치는 시폰 의상만 입는 것은 부담스럽다. 빈폴 레이디스의 허은경 디자인 실장은 대안으로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샤 스커트'를 추천했다.

허 실장은 "트렌치코트의 단정함에 샤 스커트의 로맨틱함이 더해져 출퇴근 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sjw@metroseoul.co.kr

14학번 첫 코디 운동화로 풋풋하게

새내기 캠퍼스룩 연출법

교복을 막 벗은 대학 신입생들은 뭘 입어도 어설프기 마련이다. 러닝화 브랜드 써코니 관계자는 "멋내기에 서툰 새내기들도 운동화와 가방 같은 포인트 아이템을 잘 활용하면 세련된 캠퍼스룩을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한 색상의 맨투맨 티셔츠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운동화로 마무리하면 스포티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캠퍼스룩이 완성된다. 맨투맨 티셔츠 대신 올봄 유행이 예상되는 꽃문양 셔츠를 매치하면 비시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난다.

남성은 모노톤 면바지·재킷, 톡톡 튀는 운동화로 고등학생의 티를 벗은 성숙함을 풍길 수 있다. 여기에 백팩을 메면 새내기의 풋풋함과 경쾌함이 더해진다. 백팩을 고를 때는 가지고 있는 옷과 어울리는지 고려해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넉넉한 수납 공간도 필수다.

패션용품 외에도 헤드폰 같은 디지털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더욱 개성 있는 캠퍼스룩이 완성된다. /박지원기자

패션피플 400명 '슈팅 파티' 영화같은 CF

두타 국내 첫 시도 화제

패션전문점 두타(대표 이승범 www.doota.com)가 지난 15일 오후 'TEO 스튜디오'에서 '두타 2014 스타일 프리뷰 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두타의 2014년 광고 촬영 현장에 패션 피플들을 초대해 두타의 '2014 스프링 스타일'을 미리 선보인다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광고 촬영을 오픈 파티로 진행하는 슈팅 파티(Shooting Party)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특히 이번 촬영은 무한도전으로 유명한 포토그래퍼 '오중석'씨가 맡아 파티 전체의 생생한 모습을 광고 화보로 담아냈다. 두타의 광고 모델은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출신 '정호연'씨가 낙점됐다.

이번 파티에는 재능 있는 뮤지션들도 대거 참여했다.

국내 최정상 포토그래퍼·모델·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이번 슈팅 파티를 통해 탄생한 두타의 광고 화보와 동영상은 3월부터 두타 전 관 및 옥외 광고, 두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유현정기자

고민중 이름처럼 연기 고민 컸다

국민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로 전성기 맞은 조성하

배우 조성하에게 지난 6개월은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국민 드라마 의 반열에 오른 KBS2 '왕가네 식구들'로 연기 인생 30년 만에 전성기를 맞았다. 베테랑 배우들 사이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연극 무대와 영화 드라마에서 내공을 쌓아왔는데도 고민중은 녹록지 않은 캐릭터였다.

◆ 촬영때마다 '고민의 연속'

그의 연기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극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30년 가까이 연기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고민중이란 캐릭터는 선택부터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는 "처음에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는 고사하려고 했다"고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고민중은 기본적으로 진중하면서 감정선이 많은 캐릭터다. 높은 인기를 처음 하다 보니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부담감을 안고 출발했다. 한 회 동안 진정성 있는 연기를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거짓이 아니라 걸 보여줘야 했기에 초반엔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촬영장에 나갔었다. 매회 마음의 짐을 안고 준비를 했었다. 준비의 연속이었고 극중 이름처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 막장? 가장 현실적인 모습

'왕가네 식구들'은 극 초반 시월드 대신 '처월드'를 조명하고 학벌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막장 드라마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드라마 중반 이후에는 갈등과 문제점이 풀리면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조성하가 생각하는 '왕가네 식구들'은 가장들의 현실을 착즙한 휴먼드라마였다.

"고민중은 현시대 가장의 모습을 대변한 인물이다. 10회에 등장한 운동장에서 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과 택배기사로 변신해 뒤치면 가족 누구도 그런 자신을 봐주지 않는 모습 등이 그렇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내 자식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이기도 하다.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현간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다."

◆ "평을 같은 배우로 남고싶다"

지금의 배우 조성하가 있기까지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운전, 배달, 장사 등 수많은 일을 경험해야 했다.

감정신 많은 인물 부담감 커서 러브콜 처음엔 거절하려 했었죠 작품 인기 몰이에 CF까지 찍어 큰 돈 벌었나고요? 밥사줄 정도 ”

그러나 드라마의 인기로 CF도 촬영했다.

그는 "큰돈을 벌었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욕심보다 주변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졌다.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조성하는 말 잘 듣는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다.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이다. 출연진, 제작진과 포상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아마 열심히 짐을 나르는 짐꾼이 될 것 같다.(웃음)"

그는 마지막으로 "평을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며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호기자 yswl@metroseoul.co.kr
사진/이승화(위드 디자인) 디자인/박은지

경쾌한 섹시 vs 달콤한 섹시

박지윤 새 앨범 '이너 스페이스' 출시 · 선미 같은 날 '보름달' 발표 정면 대결

JYP엔터테인먼트 출신의 두 섹시 여가수 박지윤(사진 왼쪽)과 선미(오른쪽)가 같은 날 새 앨범을 발표하고 정면 대결을 벌인다.

박지윤은 17일 새 싱글 '이너 스페이스'를 출시했다. 지난해 10월 '미스터'를 시작으로 총 4장의 싱글을 발표하는 연중 프로젝트로, '이너 스페이스'는 두 번째 싱글이다. 박지윤은 작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획 단계부터 제작을 아우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타이틀곡 '비프'는 윤종신과 박지윤이 공동 작사했고 포스티노가 작곡한 경쾌한 레트로풍 댄스곡이다. 간결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포인트 안무를 이용한 댄스가 어우러져 '미스터'에 이어 연속 흥행을 노린다.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유재석·박명수·정형돈·하하·노홍철·박재범·유지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았다. 또 다른 수록곡인 '나의 뇌구조'도 윤종신과 박지윤이 함께 작사하고 포스티노가 작곡한 곡으로, 박지윤의 서랍장을 열어보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박지윤의 속마음을 대담하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24시간이 모자라'로 화려하게 솔로 가수로 데뷔했던 선미는 첫 번째 미니앨범 '보름달'을 같은 날 발표했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섹시한 분위기가 감도는 브라스와 기타 사운드의 리드, 선미의 감미로운 보컬이 어우러진 곡이다.

'제2의 성인식'을 표방한 '24시간이 모자라'로 섹시 여가수의 매력을 뽐어냈던 선미는 신곡에서 또 한 번 '선미표 성인식'을 추구한다. '보름달이 뜨는 밤 이뤄질 사랑을 기다리는 뱀파이어 소녀의 오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는 사랑에 빠진 뱀파이어 소녀로 변신한 선미의 천진난만하고도 섬뜩한 연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슈주M 헨리 단박에 '예능 대세'

'진짜 사나이' 첫 출연 '군대 무식자' 등극 · 시청률 1위 견인

슈퍼주니어M의 멤버 헨리(사진)가 샘 해밍턴을 잇는 외국인 예능 대세로 급부상했다.

헨리는 16일 방송된 MBC '일밤-진짜 사나이'로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 신고식을 치렀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과도 초면에 스스럼없이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그는 방송에서도 평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수평적 인간관계에 익숙한 그는 한국 군대의 위계질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며 첫 방송부터 '군대무식자'라는 애칭과 함께 확실한 예능 캐릭터를 구축했다.

각종 생활용품을 담은 대형 여행 캐리어를 부대 내로 들고 오는 천진난만함에 입소 동기인 배우 박건형과 가수 케이윌은 물론 면접 하사관까지 경악시키기도 했다.

헨리는 '진짜 사나이' 원년 멤버인 외국인 병사 샘 해밍턴의 전철을 밟는 것은 물론 군대 문화를 전혀 모르던 박정식 대사에 어리숙한 구멍병사 손진영의 캐릭터를 합쳐놓은 듯한 파괴력(?)을 지녔다.

독특한 캐릭터의 등장은 곧바로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진짜 사나이'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16.2%의 시청률로 일요일 저녁 예능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진짜 사나이'의 경쟁작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12.6%)과 KBS2 '해피선데이-1박2일'(13.7%)의 시청률은 모두 하락했다.

영어·중국어·한국어 등 3개 국어를 구사하며 빼어난 춤·노래·피아노·바이올린 실력을 보유한 헨리는 지난해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러브리티'에 출연해 숨겨둔 요리 실력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순호기자

PHOTO

최원영·심이영 영화같은 웨딩 화보

배우 최원영·심이영 커플이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8일 경기도 하수라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화보는 한 편의 영화 같은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결혼 준비를 담당하는 웨딩컨설팅 와이즈웨딩 이화주 실장은 "추운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까 정성으로 신부를 챙기는 신랑의 모습과 촬영 내내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화보 촬영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결혼식은 28일 서울 코엑스 워커힐 그랜드볼룸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와이즈웨딩 제공

▶ 보이는 건 두 사람이지만 배 속에 있는 아기까지 세 식구라죠? /각종희기자

이승철 소치 폐막식서 '아리랑' 부른다

조수미·나윤선과 무대

성악가 조수미와 가수 이승철(사진), 재즈 가수 나윤선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폐막식에서 올림픽 깃발을 차기 개최국인 평창으로 전달하는 깃발 이양식이 끝난 뒤 '아리랑'을 부른다. 재일동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양방언이 음악감독을 맡아 한국의 대표적인 아리랑 몇 곡을 섞어 클래식하게 편곡했고, 조수미·이승철·나윤선이 솔로와 합창으로 노래한다. 이들의 공연에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공연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 무대를 위해 공연 곡과 참여 뮤지션을 선정하고 준비해 왔다.

/유순호기자

중국 달군 이종석… 홍콩 홀린 김우빈

현지 팬미팅 잇따라 개최

소문난 '절친'인 이종석(사진 왼쪽)과 김우빈(오른쪽)이 사이 좋게 해외에서도 나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종석은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중국 상하이의 E-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4 아시아투어 팬미팅 인 상하이 - 프레젠트'에서 2200여 명의 팬들을 열광케 하며 대륙을 달궜다.

방문 전부터 현지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종석은 팬미팅 전날 입국하자마자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14일 팬미팅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상하이미디어그룹 등 주요 매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플래시 세례와 질문이 쏟아졌다.

이 같은 관심에 화답하듯 팬미팅에서 이종석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진솔한 토크와 팬들과의 게임, 직접 준비한 선물 증정과 편지 낭독 등으로 팬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다. 달달한 고백송인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를 열창하기도 했다.

김우빈은 16일 홍콩 선샤인 시티 프라자에서 '김우빈 더 퍼스트 팬미팅 인 아시아'를 1700여 현지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끝냈다.

공항에서부터 김우빈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현지 매체들과 800여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행사장 안에서도 김우빈을 보러 온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가 하면, 밖에서도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팬들이 구름 인파를 형성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진영기자 toki427@

국내 최초 한일 동시 공연!
세종문화회관이 선택한 뮤지컬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4.02.18 티켓오픈

2014.3.14 ~ 3.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코믹배우로만 보지 마세요"

김인권 '신이 보낸 사람'서 탈북자 열연…눈물샘 자극

김인권(사진)이 관객들을 웃기던 배우에서 울리는 배우로 완벽히 변신했다.

그동안 코믹한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13일 개봉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서 180도 연기 변신을 선보여 극장가를 눈물 바다로 만들고 있다.

목숨을 걸고 몰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 작품에서 김인권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남한으로의 탈북을 시도하는 주인공 철호 역을 열연해 관객의 눈물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이다.

개봉 전부터 신천지 투자설에 휘싸이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영화가 지난 주말 예매율 3위를 차지하는 등 관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자 주연배우 김인권의 변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사 태풍코리아는 "221개의 비교적 적은 상영관 수로 개봉됐지만 점차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월요일에는 스크린이 40개 이상 증가해 장기 흥행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비인권적인 현실에 대해 우리 관객들이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진영기자

생생한 재난, 화려한 액션

film review

서.히 ... metroseoul.co.kr

■ 폼페이 최후의 날

1592년 '인간 화석'이 발견됐다. 공개된 화석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아기, 수술용 칼과 겸자를 쥐고 있던 의사, 금화를 잔뜩 움켜쥔 귀족, 서로 끌어안은 연인 등 각양각색이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18시간 만에 사라진 폼페이는 이렇게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위치했던 항구도시이자 상류 계층의 휴양지로 이름을 떨쳤던 도시다.

20일 개봉할 '폼페이: 최후의 날'은 그 화석들의 마지막 날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에는 다양한 군상의 모습이 나온다. 우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검투사, 그 검투사와 결투하다 목숨을 구걸하다 죽는 로마인, 사랑하는 여들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살해하고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하는 연인 등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항구로, 산으로 허둥지둥 도망가다 최후를 맞는다.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이 영화는 그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대폭발로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상황은 물론 맹렬한 기세로 분출하는 용암과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킨다.

메가폰을 잡은 폴 앤더슨 감독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3D 영화를 가장 잘 찍는 감독"이라는 찬사를 무색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 '타이타닉'에 참여했던 특수효과팀이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 자문을 거쳐 의상, 소품, 거리, 건축물 등 당시 모든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해 내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킷 해링턴이 노예 검투사 마일로 역을 맡아 펼치는 액션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만 서사의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남녀 주인공인 마일로와 영주의 딸 카시아(에밀리 브라우닝)가 대재난 속에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과정과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로마의 상원의원 코르부스(키퍼 서덜랜드)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기보다 억지스러운 느낌으로 와 닿는다. 15세 이상 관람가.

'겨울왕국' 英아카데미도 접수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받아

국내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사진)이 골든글로브에 이어 영국아카데미도 석권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 애니메이션은 이날 오후 영국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67회 영국아카데미영화상(BAFTA) 시상식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제71회 골든글로브의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제41회 애니상에서의 최우수 작품상 수상에 이어 이번 상까지 휩쓸며 다음달 2일 열릴 미국의 아카데미영화상 수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내에서도 개봉 한 달 만에 900만 관객에 다가서는 등 흥행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4~16일 주말 사흘간 74만7416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 895만2495명을 기록했다. 9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아이언맨 3'(900만 명)를 제치고 역대 외화 흥행 2위에 오르게 된다.

한편 BAFTA에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감독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올랐다. '노예 12년'은 최우수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치웨텔 에지오포)을 차지했고,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아메리칸 허슬'은 여우조연상(제니퍼 로런스), 각본상, 분장상을 받았다.

/박진영기자

리암 니슨 '논스톱' 27일 개봉

'겨울왕국' 등 가족 영화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겨울 극장가에 리암 니슨(사진) 주연의 액션 오락 영화가 도전장을 내민다.

27일 개봉 예정인 '논스톱'은 '테이큰' 시리즈로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원갑의 액션스타 니슨이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화제작으로 손꼽힌 작품이다.

4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가 납치돼 탑승객 전원이 인질이자 용의자가 된 상황에서 미 항공 수사관 빌(리암 니슨)이 사상 최악의 테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다. 국내에서는 니슨이 '테이큰 2' 이후 2년 만에 복귀하는 작품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메인 예고편 공개만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2월 가장 기대되는 영화 1위에 오르고 MBC '무한도전'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배급사 측은 "올해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외화의 국내 상륙 시기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빨라진 관계로 액션 영화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면서 "다양한 작품 중에서도 '논스톱'은 믿고 보는 액션 배우 니슨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흥행을 기대했다.

/박진영기자

더 강렬하게 돌아온 러셀 크로

영화 '노아'서 홍수 맞서는 노아 역 맡아

'글래디에이터' '레미제라블' 등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낸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 러셀 크로(사진)가 새 영화 '노아'에서 강인한 노아로 돌아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노아'는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아의 드라마틱한 삶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크로는 이 영화에서 세상을 뒤엎은 홍수와 마주한 인간 노아 역으로 분했다. 대홍수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모습부터 그를 방해하는 세력과의 긴장감 넘치는 액션까지 선보이며 다시 한번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은 예정이다.

2000년 개봉한 '글래디에이터'에서 비운의 검투사 막시무스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크로는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정신분열증을 극복해가는 천재 수학자로 섬세한 감정 연기를 펼쳤고 '레미제라블'에서는 주인공 장발장을 집요하게 쫓는 자베르 경감 역으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영화는 다음달 20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될 예정이다. '블랙스완'의 대런 아로노프스키가 메가폰을 잡았고 크로 외에 제니퍼 코넬리, 엠마 왓슨, 앤서니 홉킨스 등이 캐스팅됐다.

/박진영기자

책은 명품, 손글씨는 럭셔리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텍스트(text)는 기원전 8세기 그리스에서 알파벳의 발전으로 시작됐고 사람에게 가지 범위로 인정받으며 유령처럼 퍼졌다. 쓰기(writing)가 기술(technology)로 인식됐기 때문이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쓰기는 도덕과 진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고 기억력을 쇠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로만 온다은 독특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예술을 선보였다. 하얀 벽면을 만들어두고 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키를 표시하고 그 주변에 이름을 써 넣도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이포(typo)는 참여한 사람들의 수만큼 늘어났고 긴 띠를 이뤘다. 9만 명의 손글씨로 만들어진 작품은 광대한 우주와 흡사했다.

알티듀드는 혁신 제품 디자인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6명의 디자이너에게 가장 아끼는 아이템을 부수라고 했다. 그리고 부순 행위에 대해 편지를 쓰도록 지시했다. 브레이크 업 레터스(Break up letters)는 핸드폰, 프린터 등에 대해 쓰여졌는데 일상에서 소중히 하는 물건이 나쁜 상황으로 변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즉 디자이너가 편지를 통해서 사람과 제품·서비스 경험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다.

40년간 러브레터를 쓴 노부부가 화제다. 조 페스케스와 헬렌 페스케스는 1974년 2월 여행지에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편지를 쓴 이래로 지금까지 2만 9000통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결혼은 평생의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노력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택했다. 이제 곧 출간될 것으로 기대되는 책 그 안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피어난 범인류적 사랑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글씨에는 사람이 담긴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문자메세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끔 묻는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혹은 '어떻게 알았어' 쓰기가 나를 드러내는 행위란 걸 모르는 셈이다. 책은 명품이 되고, 손글씨는 럭셔리(luxury)가 되는 게 당연하다.

/트렌드랩(www.dx.co.kr) 대표

날씨

2/18 火 일출시각 07:19 일몰시각 18: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면 눈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먼 곳을 계다보는 등 눈에 휴식을 주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강북삼성병원 www.kbsmc.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4		1		
	9		1		7			2
	8	7	9				2	6
	3		6					
	1	9	2				8	3
	6		7		1			4
			4	8		6		
		1						

						4		
1							6	
6	7	8		9				3
7		9		8	2			
	2		3		5	6		
		5		1				
			1		4	9		
	3			6		1		
					3	7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저플라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ngl06.com

남편이 친구 위해 대출 받아줘 같은 일 반복되니 단속 잘해야

내사랑어휴 여자 68년 2월 1일 음력 오전 10시7분
남자 68년 3월 1일 음력 오후 11시~오전 1시

Q 남편이 2년 전 친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주는 바람에 여지까지 그 돈을 갚느리 허덕이고 있는데 또 남에게 대출을 받아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색 남편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A 총총히 잘 짜인 첨근과 같아 신분이 있고 근면합니다. 곡각(曲角 뿔이 부러짐)과 현침(懸針 날카로운 가시)이 겹쳐져 배우자궁에 근심이 서려있군요. 어는 뿔이 부러지듯 뿌기 부러지는 것도 되겠으니 은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주춧돌이 기울어지거나 날미감을 의미해 돈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한 근심이 떠날 날이 없겠습니다. 부군은 주변 상황에 귀가 얇은 편이라 지금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시간 날 때마다 조심하라고 다그쳐야 합니다. 사주는 상담을 통해 근심을 면케 하기 위함도 아니며 또한 단행을 통해 결과를 얻으라는 탁인함도 아닌 현실입니다. 반복될 수 있는 시한을 잘 기억해 발전에 저해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 대신 쇼핑몰 권유 자영업 안 맞으니 직장에 충실

벌그대 여자 70년 1월 17일 음력 오전 8시
남자 67년 10월 17일 음력 오전 4시

Q 20년째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편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업종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라고 권하는데 어찌할까요?

A 사업이 성공하려면 식신생재해야 하며 재운이 뻗어와 있어 근무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재물운이 자영업의 기운은 부족합니다. 고적한 기운이 있어 돈에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경질환에 유의해야 하며 시력이 떨어지며 치아도 부실해집니다. 두 분의 사주는 재고귀인(재물에 귀인의 도움이 있는 길함)을 두었으므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2016년부터 재운이 왕성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지내십시오. 노력을 포함해 운칠기삼이므로 운이 맞아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생일지에 백호살은 성정이 강직하고 평생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여한 벌석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18일(음 1월 1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제안한 좋은 공감대 얻게 된다. 60년생 우연히 승은 재능 발견하고 환호성. 72년생 최선을 다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84년생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라.

소 49년생 좋은 일로 바빠져 유쾌. 61년생 조바심 때문에 무리하면 어려워진다. 73년생 이견 다른 동료 억지로 설득하지 마라. 85년생 사소한 실수가 발목 잡는다.

호랑이 50년생 쉽지 않은 과제가 생긴다. 62년생 가까운 화목에 신경 써라. 74년생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 편안해진다. 86년생 연인이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감동.

토끼 51년생 당연한 속자는 무시하지 마라. 63년생 욕심부리면 걱정 많아진다. 75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피곤. 87년생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 보람 느낀다.

용 52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돈만 날린다. 64년생 반드시 보다는 현실이 확실할 것. 76년생 마음을 비우면 길이 보인다. 88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곤란.

뱀 53년생 주변의 충고에 귀 열어라. 65년생 쓴쓴이기 큰 배우자가 부남된다. 77년생 일 잘 풀린다고 자만하지 마라. 89년생 뜻밖의 친구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말 42년생 흡입할 취미가 생겨 즐겁다. 54년생 동의 제안은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려라. 66년생 투자 매매 모두 이득 본다. 78년생 대인관계 개선에 신경 써라.

양 43년생 이픈 기억은 빨리 지울수록 이득. 55년생 게으른 사람은 미뤄가 좋다. 67년생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지 마라. 79년생 남의 다툼에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

원숭이 44년생 참신은 변화의 약이다. 56년생 결과 중요하지만 과정도 신경 써라. 68년생 부탁한 일은 긍정적인 해답 얻는다. 80년생 운길이 열렸으니 적극 움직여라.

닭 45년생 생각이 다른 사람 말도 들어라. 57년생 일보다 휴식 대책이 중요하다. 69년생 뜻 어우러진 사람 만나는 일 즐거워라. 81년생 상사의 무한 신뢰에 즐겁다.

개 46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피곤. 58년생 최선 다하면 재물 따른다. 70년생 성실한 노력에 작은 기적 기대하라. 8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 넘긴다.

돼지 47년생 제 살 깎는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5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71년생 욕심부리면 어려움만 자초한다. 83년생 어려움은 잠시이니 참고 견뎌라.

metro sochi

김연아 쇼트 3조 5번째…최악 피했다

조추첨서 17번 뽑아… 리프니츠카야·아사다는 마지막 5조 연기

두 번째 대관식을 노리는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최악의 조추첨은 피했다.

김연아는 17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연기 순서 추첨에서 3조 5번째에 해당하는 17번을 뽑았다.

총 30명의 선수가 6명씩 5개 조로 편성되며 랭킹 상위 12명이 선수들을 먼저 4~5조에 배치했다. 13~15위를 3조 4~6번째에 배치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연아는 지난해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하지 않아 세계 랭킹 29위여서 참가자 중 15번째로 랭킹이 높아 3조에 배치됐다. 최상의 조추첨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도 피했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순서에 배당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워밍업을 마치고 나서 오랫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느끼는 긴장감은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빙질이 연기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만큼 먼저 연기할수록 앞선 선수들의 경기로 얼음판이 파이는 일이 적어 스케이트 날이 끼이는 등의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김연아는 2010 밴쿠버올림픽에서는 5조 세 번째 선수로 출전해 역대 최고인 78.50점을 기록했다.

김연아와 경쟁을 펼칠 러시아의 신예 율리야 리프니츠카야는 마지막인 5조 첫 번째로 연기하고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마지막 조의 마지막 순서를 받았다. 프리스케이팅 조추첨은 쇼트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인 20일 오전 4시45분에 열린다.

조 편성과 상관없이 김연아의 경기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소치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는 17일 '반환점을 돈 소치올림픽에서 남은 기간 기대되는 장면 3가지'를 꼽으며 김연아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NBC는 김연아의 이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한 뒤 "피겨 퀸으로 알려진 김연아가 다시 한 번 왕관을 쓰며 1988년 카타리나 비트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며 "20일과 21일 확인할 수 있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김연아가 17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연기 순서 추첨에서 17번을 뽑고 있다. /연합뉴스

뒷머리 '개성 올림픽' 기록 단축을 위해 털 한 올의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선수들이지만 자신의 개성 표현을 기록보다 중요시하기도 한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각국 여자 선수들의 다양한 뒷머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AP 연합뉴스

女 컬링 미국에 대승 거뒀지만 4강 좌절

국가별 메달 순위 <오후 10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독일	7	3	2
2	네덜란드	5	5	7
3	노르웨이	5	3	6
4	스위스	5	1	1
5	러시아	4	7	5
6	캐나다	4	6	4
7	미국	4	4	6
8	폴란드	4	0	0
9	중국	3	2	0
10	벨라루스	3	0	1
17	대한민국	1	1	1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소치 동계올림픽 4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미국에 대승을 거뒀다.

스킵(주장) 김지선(27), 이슬비(26), 신미성(36), 김은지(24), 엄민지(23·이상 경기도청)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세계 랭킹 10위)은 17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큐브 컬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예선 8차전에서 미국(세계 랭킹 7위)을 11-2로 대파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승5패를 기록한 한국은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세계 랭킹 1위인 캐나다가 8전 전승으로 1위, 스웨덴이 6승2패로 2위에 올라 이미 4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영국이 17일 러시아를 9-6으로 꺾으면서 5승3패를 기록해 한국을 앞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18일 중국(4승4패)과 스위스(4승4패)가 맞대결에 들 중 한 팀이 5승으로 4강에 오르게 된다.

/박진영기자 zak1427@

<롱트랙> <쇼트트랙>

취미는 금메달 본업은 노메달

소치 이모저모

○… 쇼트트랙 선수가 취미로 나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7일(한국시간) 소치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는 쇼트트랙 선수인 요린 테르모르스(25·네덜란드)가 올림픽 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노메달에 그쳤지만 반대로 취미로 나선 롱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것.

롱트랙과 쇼트트랙은 같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속성과 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었다.

예보엔 오테트 네덜란드 감독은 "테르모르스가 롱트랙 금메달보다 쇼트트랙 동메달을 원할 것"이라며 "그에게 롱트랙은 그냥 취미 활동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테르모르스는 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3000m 계주, 500m, 1500m에 나왔으나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한편 오는 18일 쇼트트랙 1000m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에 다시 도전한다.

여자 스노보더 숱 비결 가짜 콧수염?

○… 스노보드 여자 크로스 선수인 에바 삼코바(21·체코)의 독특한 미신이 화제다.

삼코바는 16일 러시아 소치의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열린 여자 크로스 경기에서도 체코 국기 색을 따라 흰색, 빨간색, 파란색 세 가지 색 콧수염과 함께 경기에 참가했다.

결과는 성공적. 삼코바는 경기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도미니크 말테(캐나다)를 은메달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경기에 나설 때면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콧수염을 그린다. 앞서 삼코바는 지난 2011년 세계 선수권 경기에 출전하며 콧수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5위를 차지했던 삼코바는 "그건 내겐 최고의 성적이었다"며 "콧수염이 행운을 가져다줬다"고 믿었다.

이번 올림픽 시상대 꼭대기에 오른 삼코바는 코밑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콧수염을 두고 "행운을 가져다준 콧수염"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취미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 출전했다가 금메달을 딴 네덜란드 쇼트트랙 대표 요린 테르모르스(위), 콧수염을 그리고 나와 스노보드 여자 크로스 금메달을 차지한 에바 삼코바(아래). /AP 연합뉴스

심석희 "두번 울지 않으리"

오늘 3000m 계주 금 사냥 1000m 예선도 질주 기대

'빙상 여제 3인방'의 막내 심석희(17·세화여고·사진)가 한국의 막판 금맥 뚫기에 나선다.

심석희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로 18일 오후 8시44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리는 3000m 계주 결승에 출전한다. 심석희와 500m 동메달리스트인 박승희(화성시청)를 비롯해 공상정(유봉여고), 조해리(고양시청)로 팀을 꾸린 한국은 지난 10일 예선에서 4분08초052로 1조 1위로 자리를 지켰다. 결승에서는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와 금메달을 다툰다.

여자 3000m 계주는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도 가장 확실한 메달밭으로 꼽힌다. 한국은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 처음 정식종목이 된 뒤로 1994년 릴레함메르올림픽부터 2006년 토리노올림픽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경기 중 중국 선수를 밀쳤다는 석연찮은 반칙 판정을 받아 메달을 따지 못했다. 당시 중국이 1992년 이후 1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빼앗겼던 올림픽 우승 타이틀을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다. 특히 심석희는 대회 전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24)·'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와 함께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한국 쇼트트랙이 대회 전부터 여러 악재에 시달리는 가운데 심석희는 자신의 주 종목인 1500m에서 막판 역전을 허용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3000m 계주와 1000m 경기를 남겨둔 심석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심석희는 이날 1000m 예선에도 출전한다.

한편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12년 만에 노메달 위기에 처한 남자부에서는 신다운(서울시청)·이한빈(성남시청)이 마지막 남은 500m 경기 예선에 출전한다.

/정순우기자 sunn@metroseoul.co.kr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17일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의 스케이팅 트레이닝 베뉴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빙속 유니폼 바꿔도 '빈 손'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소치 동계올림픽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새 유니폼(왼쪽)을 벗고 옛 유니폼(오른쪽)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노메달에 머물렀다.

미국 선수들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했다. 헤더 리처드슨이 7위, 브리트니 보가 14위, 질리언 푸커드가 18위에 올랐다.

전날 남자 1500m에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샤니 데이비스도 11위를 기록했다.

앞서 일부 미국 선수는 성적이 저조하자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새 유니폼이 공기 저항을 크게 해 경기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다 올림픽 직전 지급돼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예전 유니폼을 착용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의 주장은 변명으로 남고,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1984년 이후 30년 만에 노메달 수모를 안는다.

/박선영기자

윤석민의 놀라운 진화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한 윤석민(사진)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잣대는 선발 투수로서 승수다. 적어도 계약기간 3년 안에 선발투수로 자리잡아 시즌 10승 이상을 올린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한 건은 아니다. 일단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5선발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만일 선발 경쟁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불펜으로 가야 한다. 윤석민은 능력을 보여야 하고 선택은 벅 쇼월터 감독의 몫이다.

투수가 세계 으뜸 타자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구력, 뚝 떨어지는 빠른 변화구, 강한 체력과 정신력에 팀 적응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빅리거 윤석민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불안감이 스며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124승 투수 박찬호는 "윤석민은 잘해서 메이저리그에 간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견했다. 누구보다도 윤석민의 장점을 잘 아는 박찬호의 평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기술적인 능력도 갖췄지만 윤석민의 최대 장점은 진화 능력이다. 고교 시절 평범한 투수였던 윤석민은 프로 첫해부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다. 모든 변화구를 금세 자신의 주 무기로 만들어 주변을 놀라게 했고 첫해부터 사실상 에이스 노릇을 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적응력과 진화 능력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윤석민은 2016시즌을 마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그때 나이는 불과 30세다. 어쩌면 야구 인생에서 더 없이 중요한 3년일 수 있다. 우등 성적표를 받아 추신수처럼 진짜 대박을 터트리는 윤석민을 보고 싶다.

/OSEN 야구전문기자

소치 하이라이트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작	한국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m	23시	이승훈
쇼트트랙	여자 1000m 예선	18시30분	심석희 박승희 김아랑
	남자 500m 예선	19시15분	신다운 이한빈
	여자 3000m 계주 결승	20시44분	심석희 박승희 공상정 조해리 김아랑
봅슬레이	여자 2인승	19일 0시15분	김선옥 신미화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16시	김소희